

아프가니스탄 주둔 용병이 구호품을 받으러 온 헬만드 주 산긴 지구 출신 난민 여성들에게 호통을 치고 있다. 분쟁 지역에서 피난 온 아프가니스탄인들로 북적대는 난민 캠프들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데, 이곳 용병들은 캠프의 '질서'를 유지하려고 지급된 총을 사용하기도 한다.

땅 위의 하수가 난민 캠프를 가로질러 흐른다. 겨울을 거치며 많은 아이들이 질병에 걸려 숨졌다. 그동안 아프가니스탄 정부는 재건 지원 명목으로 90억 달러(약 11조 원)을 받았지만, 아프가니스탄인 10명 중 6명이 깨끗한 식수를 얻지 못하고, 인구의 절반이 하루 2달러 미만으로 살아간다. 이명박 정부가 재건을 위해 재정 지원을 확대하더라도 그 돈들은 고스란히 아프가니스탄의 부패한 정부 관료와 '재건' 기업들의 배나 불리게 될 것이다.

여성 인권을 위한 전쟁? 전쟁 이후 셀 수 없이 많은 여성들이 구걸로 생계를 꾸려 나가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여성들이 전쟁 이전의 보잘 것 없던 혜택조차 박탈당한 채 끔찍한 삶을 강요받고 있다. 설상가상으로 점령 이후 성폭행 범죄율이 역사상 최고 수치를 기록하고 있다.

헬만드 주 난민들이 아랍계 NGO에게서 의복이 든 소포를 얻으려고 기다리고 있다. 이들은 자신들의 정부에게는 무시당하고 중동인들의 선처에 의존해야 하는 현실에 분노하고 있다.

오바마의 허니문이 끝나고 있다. 미국인들 60퍼센트 이상이 오바마의 전쟁에 반대한다. 지난 8년 동안 미군 사망자 수가 1천여 명에 이른다. 올해에만 미군 장병 전사자 수도 거듭거듭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다. 그런데도 오바마 정부는 또다시 1만여 명 이상의 증파를 추진하고 있다. 야만적인 학살 전쟁을 당장 중단하라. 그리고 모든 미군을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라.

2009년 10월 24일 영국 런던에 1만 명 이상이 모여 아프가니스탄 전쟁 종단을 요구하며 반전 시위를 벌였다. 최근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영국군 사망자가 급증하고 있다. 반전 시위에 참가한 사람들은 “전쟁이 아니라 일자리와 교육에 돈을 써라”, “아프가니스탄에서 철수하라”를 외치며 행진했다.

2007년 아프가니스탄에서 피랍된 샘물교회 선교사들. 이들 중 2명이 목숨을 잃었다. 아프가니스탄 재파병은 또다시 한국인들을 테러의 표적으로 만들 수 있다. 이명박 정부는 재파병 결정을 당장 철회하라!

‘재건’ 명분으로 파병된 동의부대 소속 윤장호 하사는 2007년 바그람 미군기지 앞에서 테러 공격을 받아 사망했다. 바그람 미군기지는 인권유린과 폭력으로 아프간인들에게 악명 높은 곳이다. 이명박 정부가 확대 파견할 지역재건팀(PRT)과 특전사로 구성될 300여 명의 파병 부대는 아프가니스탄인들에게 점령군으로 인식될 것이다.